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나흘-

나흘 1:7, 로마서 12:19-20

정운돈 목사님

* **나:7**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 **롬12:19-20**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솥불을 그 머리에 쐬어 놓으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호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영접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미션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졸업예배이기도 하다. 저도 램넌트 시절을 보내며 많은 졸업을 했다. 램넌트들은 꼭 기도를 해야 한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아침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램넌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읽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키고 답을 얻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저는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포럼할 때 은혜를 주셨다.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과 직통했다. 오히려 목사님과 선교사님, 부모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었다. 저희 집이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교회도 자주 옮겼는데 저는 사형제를 다 데리고 교회를 갔다.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다. 여러분은 성령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된 지금도 하나님께 묻는다.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건너야 한다. 그게 지도자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성령인도를 받아야 한다. 후대들은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서밋이 될 수 있다. 한 명의 램넌트만 나오면 시대가 바뀐다. 참사랑교회에서 그런 후대가 나올 줄 믿는다.

세상을 살다보면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과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때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 약한 나라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과 나쁜 나라들을 왜 가만히 놔두시나요?’ 나훔 선지자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었다. 앗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악한 나라들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

다. 아무리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와와 나를 지켜주시면 끝난다. 그게 중요하다. 세상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살리는 자가 되면 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눈은 밝아졌는데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솥불을 그 머리에 쐬어 놓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남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복음 전하고 은혜 받을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남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문제 생겼을 때 사람에게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달음, 위로, 답, 평안함을 주신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진짜다. 평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 확신으로 바뀐다. 미래에 대한 응답으로 온다. 거기까지 가서야 한다. 지금 문제가 많은데 단순히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살롬’이 오고 미래가 보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음을 알고 출발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갔다.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집중하고, 사람 의지하거나 위로받지 말고 예수를 친구삼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나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한다. 나훔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앗수르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다. 나훔은 앗수르를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훔에게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고 살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동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겠나. 여러분 밖에 없다. 나훔서는 경고를 받은 앗수르에게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며 앗수르의 침략과 위협을 받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언약의 메시지이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사탄에게는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는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라고 하셨다. 솥불을 그 머리에 쐬어놓으신다.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된다. 원수를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 악역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 아픔을 아시니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다. 반드시 갚아 주신다. 결국 우리 마음을 시원하도록 하신다. 말기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를 더 여유롭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신다. 시간이 지나 결국 앗수르도 바벨론도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가버나움이나 나훔의 고향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지명의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이다. 헬리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번역하는데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실 때의 그 단어와 같다. 성령은 ‘위로자’이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상황은 우리 마음이 무너져 섭섭하고 무능할 때다. 스스로도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은 ‘권능, Power’를 주신다. 성령께서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은 성령충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복음도 전하고 힘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내가 힘이 없고 좌절하는데 어떻게 살리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친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친구가 생기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떠난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힘이 성령 안에서 있기를 바란다.

1.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 하나**

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1) 그것은 언약적인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사탄의 울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의 언약이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신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6장 문제가 발생하자 구원의 방주의 언약을 통하여 회망과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가 발생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의 언약을 허락하셨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위로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십계명과 613개 율법과 절기를 주셨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광야생활 속에서 주셨다. 목동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나라들을 통해 구약말씀을 정리하였고 회당의 응답을 받았다. 로마에 속국이 되었지만 로마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다. 하나님은 겨우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한다.

(3)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충만의 언약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주셨다.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적국인 앗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다.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다. 흑암의 나라는 멸망한다. 복음으로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 참된 세계복음화와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의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면 믿음이 커질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제자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한다. 경제와 가정도 마찬가지다. 산업 현장에 빛을 비추면 빛의 경제가 몰려올 것이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을 삼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은 오히려 세계복음화와 다민족복음화를 위한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언약적 위로인 것이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신다.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세계복음화 할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확신을 주신다.

2. 그리스도는 결국 세상과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복하게 하기 위해,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가 나온다.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 무기를 가져야겠다.

(1) 첫 번째 무기는 구원의 확신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체험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적 법조문이다. 말씀에 나와 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겨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확신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건 다르다.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여러분의 죄 뿐만 아닌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용서하셨다. 여러분이 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없으면 겨우 구원받고 전도할 수가 없다. 확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접해 달라고, 교회에 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면 제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2) 인도의 확신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은 자녀들을 항상 돌볼 수 없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야 한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면계약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몇 번 응답받으면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는다. 더 큰 응답, 더 소중한 제자, 더 필요한 업을 주신다. 성령이 나의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돕고 살리는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면 실망만 하고 좌절하게 된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라.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셔야 한다. 내가 똑똑하고 더 낫다는 건 스스로가 아닌 남들이 할 말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 승리의 확신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실상과 증거가 와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에 원망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4) 기도응답의 확신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램넛트 사역의 끝은 램넛트가 문제 왔을 때 무릎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램넛트는 가만히 놔둬도 된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무너진다. 그냥 응답이 아닌 크고 은밀한 일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행복은 여러분의 환경과 별개다.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리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음의 무기는 사죄의 확신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에 사람은 하나님을 피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거나 미워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해라.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7명대, 7여정, 7이정표 중 7여정이다. ① 먼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대단한 보좌의 축복이고 구원의 역사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힘으로는 언젠든지 방전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다. ② 10비밀, ③ 10발판, ④ 5확신, ⑤ 9가지 흐름, ⑥ 평생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만들어 나갈 62가지 삶과 훈련이다. ⑦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해야 한다. 나 혼자서는 전도 선교 못한다. 그러나 원니스되고 하나가 되면 걱정 없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훔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과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전도망대, 전교망대, 치유망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훔서를 통해 위로와 확신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오니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친구와 직장과 모든 이웃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